

October 30, 2019

## Global

### 압제적 부담'의 정부 규제는 갈망하는 황금쌀의 승인을 지연시켜

과학저술가이자 '황금쌀: GMO 슈퍼푸드의 위태로운 탄생(Golden Rice: The Imperiled Birth of a GMO superfood)'의 책 저자인 Ed Regis에 따르면 "정부가 과도한 규제 지연의 결과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수 년 동안 사망하거나 장님이 되었다,"고 밝혔다.

Regis는 황금쌀이 수년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정부 규제만큼 방해하는 것은 없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GMO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 작물 배경의 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에 규정된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극단적인 준수로 인해 이러한 규정이 확립되었다고 덧붙였다. 비록 GM작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이 규제들은 또한 "이러한 생명을 살리고 시력을 구하는 슈퍼푸드의 빠른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금쌀의 공동 개발자 중 한명인 Ingo Potrykus는 또한 유전자변형쌀의 개발이 GMO에 대한 정부 규제 준수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지연되었다고 추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Global

### 생명공학대두, 지금 전세계 생명공학작물 지역의 50%를 차지

ISAAA 보고서인 '2018년 글로벌 생명공학/GM작물의 상업화 현황(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in 2018)'에 따르면 4대 주요 생명공학작물인 대두, 옥수수, 면화 및 캐놀라가 2018년 26개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생명공학작물이었다.

대두는 9,590만 헥타르, 옥수수 5,890만 헥타르, 면화 2,490만 헥타르 그리고 캐놀라 1,010만 헥타르 순이다. 이들 작물의 FAO 전세계 재배 면적 기준으로 2018년에는 대두 78%, 면화 76%, 옥수수 30%, 그리고 캐놀라 29%가 생명공학 작물이었다.

2018년에 재배된 다른 생명공학작물로는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무, 감자, 사과, 사탕수수, 가지 등이 포함된다.

2018년에 재배된 생명공학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및 알팔파에 대한 생명공학작물 연간 최신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Biotech Crop Annual Updates*

## Africa

### 니제르 의회, 국가바이오안전성 법안 승인

니제르 공화국 의회는 2019년 10월 17일 니아미(Niamey)에서 바이오안전성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니제르는 약 2,3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식량안보 보장이 이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핵심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최신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생물변형유기체(LMO)와 그 제품들의 국가가 이동에 관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생명공학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lmoustapha Garba 환경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이행 조치의 채택을 보장하고 니제르 국민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의 적용을 책임지는 다양한 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채택은 효과적인 바이오안전성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한 첫 단계이며, 국내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정치적인 우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니제르 공화국의 환경부와 Centre National des Études Stratégiques et de Sécurité (CNESS)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국가가 바이오안전성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행정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할 것이다. *News Diary*

## Asia and the Pacific

젊은 뉴질랜드 과학자들, GM 연구 규제의 재점검을 호소

뉴질랜드의 젊은 과학자 집단이 뉴질랜드 아오에아로아 녹색당(Green Party of Aotearoa New Zealand)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현재의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변형(GM)규정에 대한 입장을 바꿀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물학과 환경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30세 미만의 과학자 155명이 16년 전에 제정된 엄격한 GM 규제를 재점검해 줄 것을 녹색당에 호소했다. 현재까지 뉴질랜드 규정은 농업효율성, 탄소 격리 및 대체 단백질 생산 분야에 대한 연구 기술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1996년 유해 물질 및 새로운 유기체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GM연구를 포함하도록 2003년에 개정되었다.

그들의 서한에서 그들은 GM에 기반을 둔 연구가 기후변화, 특히 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다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한 기존의 제도는 목표된 유전자변형이 대중과 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현재 규정이 재검토될 경우 효과적인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젊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행동과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녹색당에 호소했다. 이들은 당을 통해 뉴질랜드 의회 의원들이 현재 정책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개 서한을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Spinoff*